德成女子大學의 知·德·美 敎育

洪 雄 善
(德成女大 學長)

1. 머리말

서울 한복판에 자리잡은 운치 있는 고궁인 운니동 캠퍼스와 현대적 건축 예술미를 자랑하는 쌍문동 캠퍼스로 나뉘어 있는 본 德成女子大學은 4,500여 명의 학생과 90여 명의 교수가 한 식구를 이루고 있다.

본 덕성여대에서는 어떤 학문을 전공하는가에 상관 없이 한 여성과 인간으로서 '교육받은 사람(educated man)'이 마땅히 지녀야 할 올바른 사고, 표현력, 정확한 분석과 판단력의 훈련을 받게 하여 지도적인 전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본교 교육의 특색이라 할 수 있는 '자유교양교육(liberal arts education)'을 통해 시행되고 있으며, 이 같은 교육의 참 뜻은 덕성의 교육이념인 '知·德·美를 겸비한 여성'을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혁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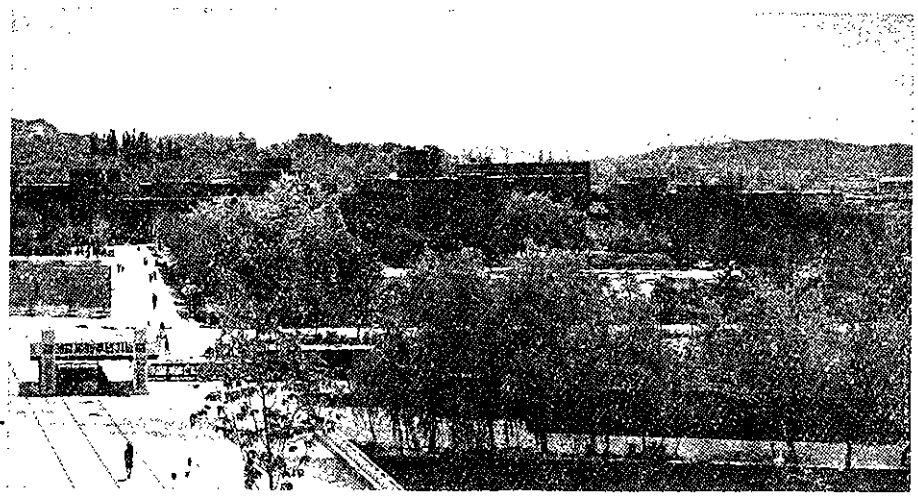
德成學園의 전신은 '槿花學園'이며, '근화학원'은 다시 '조선여자교육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선여자교육회'는 우리나라 여성교육의 선구자로서, 미국서 안창호 선생과 독립운동에 헌신하다가 귀국하여 교육운동, 특히 여성 계몽운동에 앞장서서 그 활발한 전개에 힘썼던 車美理士 여사에 의해 1920년 결성된 단체이다. 이 '조선여자교육회'에서는 같은 해 4월 19일 종교예배당을 빌어 '여자야학회'를 정식으로 발족하였는데 이것이 덕성학원의 시작이며, 한국 근세 교육사에서 최초의 야간 여성 교육기관이기도 하다.

그 후 '근화학원'이란 이름으로 주·야간을 통해 보통과정과 고등과정의 신교육, 계몽적 성격을 띤 단기·속성 여성교육을 실시하였다. 1925년에는 교육의 터전을 안국동으로 옮기고 槿花女學校로서 정식인가를 받았다.

1934년에는 재단법인 근화학원의 설립인가를 받았고, 그 이듬해인 1935년 9월에는 '근화여자실업학교'로 개명하였는 바, 이는 차미리사 여사의 건학이념인 여성의 경제적 독립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야간학부를 운영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취해진 것이며, 이는 아직도 본 대학 교육의 지표가 되고 있다.

1937년의 중·일전쟁으로 일제의 탄압이 더욱 심해진 가운데, 무궁화를 가리키는 '근화'라는 교명을 바꾸라는 일제의 위협(폐교를 강요)에 의해 1938년 10월에는 재단법인과 교명을 '덕성학원' '덕성여자실업학교'로 바꾸게 되었다. 그러나 교표만은 끝내 무궁화를 고수하여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다.

1945년 해방을 맞이하면서 '덕성여자실업학



▲ 현대적 건축 예술미를 자랑하는 쌍문동 캠퍼스

교'는 '덕성여자중학교'와 '덕성여자고등학교'로 개편되었으며, 1950년 5월에는 당시 덕성여중·고 교장이었던 宋今璇 박사에 의해 유서 깊은 운현궁에 '덕성여자초급대학'이 설립되어 구미식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국문과, 영문과, 가사과를 개설하였다. 이어 1952년 3월에는 4년제 대학으로 학제를 개편하였고, 1961년 대학원이 설립(1963년 폐지되었다가 1979년 재인가됨)되었으며, 1962년에는 병설 초급대학을 설립하였다. 초급대학은 1968년 4년제 대학에 통·폐합되어 9개 학과로서 기반을 다졌으며 각종 교사와 교육시설을 확충하였다.

1970년 朴俊燮 이사장의 서거로 송금선 박사가 제 4 대 이사장으로 취임하였고, 부학장이었던 朴元圖 박사가 제 2 대 학장으로 취임하여 학사 및 행정 관리 면에서 서서히 새 기풍을 조성하였다. 박원국 학장은 여성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개선, 장학기금의 확보를 위한 운동의 전개, 특대장학제도에 의한 학생의 질적 향상, 재단 소유의 유휴지 개발에 의한 제 3 의 교육재원 확보, 아카데믹 플랜 및 마스타플랜에 의한 대학의 종합적인 발전의 추진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개혁을 주도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서는 정부의 실험대학제도에 순응하여 대학의 내실화와 외형적인 시설의 확충을 위해 온갖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그리하여 당국의 대학인구 억제책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편제 면에서 확장되었던 것이다.

1971년에는 야간부의 설립인가를 받아 의상학과와 응용미술과를 개설하였으며, 1977년에는 유아교육과가 증설되었고, 1978년 10월에는 실험대학으로 선정·인가를 받음으로써, 1979년 주간에 비서학과, 미술교육과, 야간에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경영학과, 비서학과가 증설되어 실험대학으로의 출발을 보게 되었다.

또한 1980년부터 이미 전기한 바 있는 대학원의 재설립 인가를 받아 가정학과와 약학과를 개설하였으며, 그 이듬해인 1981년에는 영어영문학과를, 1982년에는 유아교육과를 개설하였다. 학부 또한 1981년도부터 독어독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사학과, 무역학과, 수학과, 화학과를 증설하여 졸업정원이 1,000명에 이르게 되었다. 이는 1983년도부터 재조정되어 인문과학부에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불어불문학과, 독어독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사학과의 6개 학과, 사회과학부에 경영학과, 회계학과, 사회학과, 도서관학과, 심리학과, 유아교육과의 6개 학과, 자연과학부에 수학과, 화학과, 가정학과, 식품영양학과, 약학과, 제약학과의 6개 학과, 예술학부에 동양화과, 서양화과, 산업미술학과, 의

상학과의 4개 학과로 22개 학과, 졸업정원 1,000명에 입학인원 1,250명의 면모를 갖추게 된 것이다.

한편 1982년도 3월 쌍문동 교지에는 1979년 준공된 3,000여 평의 가정관 및 약학관에 이어 2,500평 규모의 이상적인 미술관을 종합 마스타 플랜에 따라 준공하였으며, 1984년 9월의 4,400여 평 규모의 중앙도서관 준공으로 운니동 2부 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기구가 쌍문동으로 통합·이전하였다. 또한 대학원도 1985년부터 국어국문학과, 불어불문학과, 화학과가 증설되어 총 7개 학과로서 그 규모를 갖추어 가고 있다.

아울러 운니동 캠퍼스를 평생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2부대학 외에 부설 평생교육원을 1984년 9월에 개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제 덕성여자대학은 삼각산의 백운대, 인수봉의 정기로 감싸인 쌍문동 교지를 중심으로, 명실공히 모든 면에서 새롭게 웅비하는 전기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3. 교육의 특색

본 대학은 운니동과 쌍문동 캠퍼스로 나뉘어 4,500여 명의 학생과 90여 명의 교수가 내용적으로 알찬 교육에 임하고 있다. 본 대학 교육의 특색은 22개 전문학과에서 어떤 학문을 전공하든지간에 한 여성과 인간으로서 교육받은 사람(educated man)이 마땅히 지녀야 할 올바른 사고, 표현하는 능력, 정확한 분석과 판단력의 훈련을 받게 함으로써 지도적인 전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유교양교육(liberal arts education)에 많은 역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교육 방향의 근본적인 취지는 교양교육과 전문교육은 기본적으로 상관되어 있으며 서로 보강한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전문교육이 한 분야의 '깊이'에 치중한다면 교양교육을 통해서 획득하는 지식과 사색적 훈련은 자기가 선택한 분야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양교육은 예술, 문학, 역사, 사회, 철학, 자연, 여성교양 등에 대한 다양한 지적인 접근, 논리적 사고력의 훈련, 과학적인 독해력, 자기 의사의 정확한 표현력을 실현하려는 의도하에 20명 단위의 소집단 토의, 기타 다양한 시청각 교육과 Field Work 등으로 짜여지고 있다.

4. 교육의 목표

본 대학은 知·德·美를 겸비한 여성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세 가지를 기본적인 교육목적으로 삼고 있다.

1) 교양교육

知·德·美를 겸비한 여성을 양성하기 위해 본 대학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 강조하는 것은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양교육이라 할 수 있는 바, 1969년 이래 자유교양과목의 개발에 힘써 오는 한편, 소집단 토의(세미나 방법) 등의 특수한 교수방법을 통하여 독자적인 교양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본 대학의 교양과목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여성교양'이라는 명칭하에 정규과목으로 실시해 왔는데, 이는 6·25사변과 그 후 급변한 사회적 변동의 와중에서 비롯된 기성가치 체계의 붕괴, 이로 인한 젊은 세대의 가치관의 혼란을 교육이 직시하면서 대처해야겠다는 생각이 바탕이 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우리의 중·고등학교 교육제도가 인간교육보다는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에 치중함으로써, 교육내용이 형식화·획일화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우려 또한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대학교육이 떠맡은 사명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는 바, 처음에는 동·서양의 명저를 중심으로 학생들에게 읽히고 소집단 토의를 하는 것으로 교육내용을 삼다가, 이 제도를 더욱 확대·발전시키기 위해서 몇 가지 관점들을 구체화시키기에 이르렀다. 교양교육을 확대·개편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지식에 편중된 상업주의적인 교육사조를 불식하고 일반 교양과목에 대한 소양을 고루 갖춘 교양인의 양성을 그 이념으로 하는 미국 St. John's College의 독특한 교육제도와 Harvard University의 개편된 교양과목인 Core Curriculum을 비롯하여

동·서양의 여러 대학의 교육제도를 연구하였다.

이렇게 정립된 본 대학 교양교육이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은 다음의 네 가지 관점이라 할 수 있다.

첫째, 교양교육을 통해 우주와 사회, 인간 및 사물에 대한 전체적 파악능력과 장래에 대한 전망능력을 배양한다. 현대 사회는 과학기술의 극단적인 발달과 그 응용으로 인하여 과학의 실용화 단계에서 야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인간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사회에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술과 전문지식만의 소지자보다는 분석·비판·종합하는 능력을 가진 인간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본 대학은 새로운 형태의 교양과목을 개발하려고 하였다.

둘째, 인접 및 관련 학문 분야와의 연관을 강조하는 범분야적 사유의 강화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본 대학에서는 어떤 학문을 전공하든지간에 다른 인접학문에 대한 깊은 소양을 갖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이것은 개별과학들이 지닌 공통적 기본개념의 분석을 통한 지식체계의 구성적 특성을 규명함으로써 강화된다고 보기 때문에 교양과목을 특히 중요시하고 있다.

세째, 교양교육을 통한 윤리교육의 강화이다. 과학기술의 보편화와 사회개발 계획의 강화 및 미래지향적 사유의 추세 등은 상고적·과거지향적 가치관에서 벗어나게 하며 전통적·형식적 윤리규범의 무력화를 가져오고 있다. 형식적 윤리규범보다도 개인의 자율적 사유에 의해 당면한 도덕적 선택을 해야 하는 전전한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본 대학은 상이한 인간관 및 사회관들이 전제하는 여러 가치관의 인식·분석을 행하며, 인간에 대한 이해와 세계 속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결정하는 원칙들을 분석·음미시킨다.

네째, 교양교육을 통해 동양 및 한국사상에 대한 이해를 강화시키려 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근대화 과정이 강력히 추진되는 가운데 한국 및 동양 전통에 대한 재발견·재평가의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는 역사적인 상황에 있다. 이것은 과학문명의 부정적 측면을 넘어서서 한국적 모형을 창조하기 위한 노력이라고도 볼 수 있다. 즉, 동양적·한국적인 것의 특수성의 추구를 통해 어떻게 세계적인 것의 보편성에의 기여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깊이 있게 사색하게 하는 것이 매우 긴요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서 동양윤리와 함께 동양적 가치관의 여러 원칙들을 분석·음미시킨다

본 대학이 교양교육의 교수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은 학생을 20명 단위로 나눈 소집단 토의법(discussion method)이다. 이 소집단 세미나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학생은 먼저 소집단 토의 세미나에 참석하기 1주일 전에 반드시 주어진 독서자료(reading assignment)를 읽어야 하며, 그 자료 가운데서 뽑은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게 된다. 교수 1명이 이 소집단 토의에 동석하여 토론의 방향과 진행을 돕고 있으나, 이 시간에는 토론에 참가한 학생이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파악하는 것이 중요시된다. 토론과 세미나를 진행하는 방법을 철저하게 익히게 하기 위해서 미국의 고전재단(Great Books Foundation)에서 펴낸 「독서토의지도(*Manual for Co-leader*)」란 책을 의무적으로 읽히고 세미나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게 한다. 세미나는 여러 가지 토의방법을 통해서 스스로 학습 성과를 가져오게 하는 매우 적극적인 방법이다.

교양과목으로 본 대학에서 실시하는 것을 들면 다음과 같다.

▼ 운니동캠퍼스

1학년 : 예술의 세계(동양미술, 서양미술, 국악, 서양음악, 무대예술)
자연과학개론
국민윤리
문학의 이해
2학년 : 인간과 사회
국사
3학년 : 인간과 사상
여성학

2) 여성학

본 대학은 자유교양교육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일반교양교육에 역점을 두는 한편, 본 대학이 여성교육기관이라는 데 특별한 관심을 갖는다. 넓은 의미에서 민주적 인간교육이라는 이상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여러 가지 과목을 통합·운영하는 교양교육의 일환이라고도 할 수 있으나, 특히 여성교양교육을 4학년에 이수하도록 한 것은 멀지 않아 이들이 가정교육의 핵을 이루는 여성이라는 점 때문이다. 교육을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면 그 중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이 가정교육이다. 장차 어머니가 될 여성에게 고도의 교양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장래 이 나라를 짊어질 자녀를 위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여성교양교육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관점에서 운영한다.

첫째, 현대의 여성이라면 누구나 갖추어야 할 여러 분야의 지식을 체계적으로 익힌다.

둘째, 자녀를 키우는 교사로서의 어머니와 아내로서 갖추어야 할 여성교양에 주안점을 둔다.

3) 전문적 학술의 교수와 연구

교양교육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오늘의 과학기술사회에서 쓸모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교양교육만으로 될 수는 없다. 교양교육은 다만 전문교육의 기초가 되고, 교육의 원대한 완성이란 면에서 강조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본 대학은 시대에 뒤지지 않는 전문교육을 알차게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과학과 과학기술의 보다 포괄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상당한 규모의 대중사회적 성격을 띠어 가고 있고, 앞으로 이런 현상은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처할 인재를 양성함에 있어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여성은 한낱 가정의 주인이라는 전통적인 관습에만 얽매이지 않고 미래에 펼쳐질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기대하며, 본 대학은 보다 알찬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나가 새로운 전문적 지식을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유능한 인물을 양성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전문적 학술의 교수와 연구제도를 완비하여 자유로운 연구 분위기 속에서 학술연마에 전념하도록 한다.

5. 발전계획

1975년 7월에 수립한 장기 종합발전 계획이 실험대학 및 졸업정원제 실시로 인하여, 학교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30년이나 앞당겨 커졌기 때문에 1985년 대학종합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장기 종합발전 계획을 수정·보완하고 있는 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종합대학교로 개편하여 인문·사회·교육·기초과학·약학·가정학·예체능계의 단과대학을 두고, 학생수는 학부 10,000명, 대학원 2,000명 수준으로 한다.

(2) 운니동 캠퍼스에는 직장이나 가정을 가진 여성의 사회 교육기관으로서 개방대학을 둔다.

(3) 교육목표는 심오한 학문 연구와 교수에 두고 아울러 풍부한 교양과 고매한 인격 그리고 고도의 전문지식을 겸비한 인간을 양성하는 데 둔다.

(4) 교수의 연구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교수 대 학생의 비율을 점차 향상시키고, 부설연구기관을 활성화하며, 연구교수의 임명 및 교원의 해외 파견 연수를 계속적으로 실시한다.

(5) 행정관리는 민주성, 자율성과 사무의 능률성, 균형성에 기초를 둔다.

(6) 교육과정의 연구 개발과 교수 방법의 개선으로 교육의 질을 높여 명실공히 知·德·美를 겸비한 여성지도자를 양성하는 세계 속의 대학이 되도록 한다. *